칼 럼

임 성 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사랑을 버리면

사랑! 사랑! 사랑!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진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짙붉은 동백 꽃무리가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 같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만나지 않아도 통한다. 사랑이라는 큰 줄기의 힘이 강한 원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래서 사랑은 좋은 것이다. 그 어떤 악조건도 사랑은 헤쳐갈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은. 과거에 정부가 한글날을 맞이해 조사한 결과도 역시 '사랑'이라는 말이 1위였다. 아기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싶은 단어도 1위가 사랑이었다. 그만큼 사랑은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 것이다.

사랑은 곧 행복으로 통한다. 사랑이 없이는 행복이라는 꽃이 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들보다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왜일까.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정신적 · 신체적 · 재산적 피해를 준 사람이라면 미움을 넘어 증오심까지도. 하지만 용서해야 한다. 그래야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미워하는 한 상대방도 날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묘한 것은 미움의 대상보다는 미워하는 자가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상대방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 고통 받는 것도 억울한데 상대방은 그것을 인지도 못하면서 잘 살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남을 변화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누어있는 어느 성공회 주교의 묘비명처럼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참으로 길이 남을 묘비명이다. 정권이 바뀐 지 2년 반이 넘었다. 정권을 잡은 쪽이나 그렇지 못한 쪽이나 각자의 처지에 따라 보는 프리즘이 다를 것이다. 나아갈 길을 놓고 셈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셈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 하나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어떻게 보복해 볼까 하는 생각만 갖게 되면 이 나라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것이다. 대한민국은 단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럴 때는 이 나라의 어른들이, 종교계의 대표들이 중용지도를 들고서 나서보면 어떨까. 그런 거목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사소한 곳에 숨어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누구나 찾는 행복은 언제나 나하고는 반대편에 있다고 하면서 항상 불만만 가득하다. 모두가 다 행복을 바라는데 그 행복을 얻을 수 없을까? 기대는 큰데 나의 욕심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행복해 질 수 있다.

행복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행복해 지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물건을 사는데 공짜가 없듯이 대가를 치루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다. 동물의 세계도 식물의 세계도 다 같아 자연은 그렇게 만들어 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얻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하고 동물은 약자를 잡아먹기 위해 뛴다. 그래야 허기를 면하고 식물은 지하에 영양분을 빨아 올려야 자랄 수 있다. 벌과 나비도 공짜로 꿀을 얻지 못하며 일한 대가로 꿀을 얻는다.

흔히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잘 만족할 줄을 모른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공통된 병입니다. 그래서 늘 목이 마른 상태와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번쩍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정신적으로는 초라하고 가난합니다. 크고 많은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작은 것과 적은 것에서 오는 행복의 조건은 모른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름다움과 살뜰함과 사랑스러움과 고마움에 있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차 한 잔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고마움을 느낄 때도 아주 많습니다. 도로변을 지나다가 무심히 피어있는 한 송이 꽃무릇 앞에서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할 수 있고 그 꽃을 통해서 하루에 필요한 정신적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정한 친구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도 나는 행복해진다. 행복은 이처럼 일상적이고 사소한 데 있는 것이지 크고 많은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늘 행복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베푸는 것이 아니고 자기 능력에 맞게 베푸는 것이다.남에게 베풀 때 마음이 흐뭇해지며 행복 호르몬 엔돌핀이 분비되어 건강에도 좋다. 남을 칭찬하는 것도 하나의 베푸는 일이며 이렇게 사는 삶이 건강하고 진정 행복한 삶이다. 우리 모두 행복을 큰 곳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행복은 작은 것 과 적은 것 속의 사소한 곳에 숨어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중균 / 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

社 說

안전관리 부실한 청소년 시설

전남지역 일부 청소년 수련시설이 금지된 건축자재를 여전히 사용하는가 하면 미인증 고위험 수련활동을 홍보하고 불법 용도변경 증축시설을 수련시설로 등록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니 걱정이다. 전남도는 도내 6개 시 · 군 11곳(공공 9곳 · 민간 3곳)의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표본 감찰해 위법사항 41건을 적발, 해당 시 · 군에 통보하고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1999년 경기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청소년 수련 시설 관련 제도가 보강됐으나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부실이 여전한 것으로 이번 감찰에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시설의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쓸 수 없는 건축자재인 드라이비트 · 샌드위치 패널 등을 사용한 시설물을 수련시설로 등록하고,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급 기관의 기능 보강 권고도 무시했다

또 배상보험 일부 가입, 불법 용도변경 · 증축 분할, 미인증 고위험 수련 활동 홍보, 법령에서 금지하는 중요 프로그램 위탁 운영 등 부적정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시 · 군은 재정 형편을 이유로 시설물 개 · 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감찰 결과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13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화재 안전성 확보 개 · 보수 계획 미수립 4건, 자체 안전점검표 부실 작성 4건, 반복적 안전 위반사항 조치 미흡 1건, 수련 시설 배상보험 가입 부적정 4건 등이다.

시설물 관리 분야에서는 실별 정원 기준 위반 8건, 유스호스텔 허가 지도 · 감독 미흡 1건, 부지 면적 등 중요사항 변경 부적정 1건, 필수시설 불법 폐지 1건, 불법 칸막이벽 증설 2건, 건축 신고 미이행 1건, 청소년 이용시설 제한 1건 등 15건을 적발했다.

전남도는 청소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 무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 감시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 · 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 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 장·발 행 인 김 평 호
편 집 인·편 집 국 장 강 서 원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